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25.(수)	**사진 · 영상**	사진(○),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25일(수)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박병남**	044-300-7179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박병남 의원, "공공시설 인수, 준공보다 시민의 이용이 먼저"

– 집현동 복컴 유아용 변기 미설치 지적, 설계 단계 운영부서 의견 반영, 관리 인수 책임 명확화 촉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병남 의원(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은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건립 및 인수·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시민 이용 중심의 공공시설 인수·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유아용 변기 미설치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시설 설계 단계에서 실제 이용자의 특성과 운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변기 하나가 빠진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필요한 기본시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며, "설계 과정에서 놓친 작은 부분이 결국 시민의 불편과 행정의 추가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시설 인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종시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으며, 공공시설 준공과 실제 개장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장기간의 공백도 문제로 제기했다.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5년 10월 준공됐지만, 도서관은 오는 2027년 6월, 수영장은 같은 해 7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주민들이 시설 이용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준공은 행정 일정일 수 있지만, 개장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건립과 운영 준비가 별개로 추진되는 현행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공공시설 설계 단계부터 실제 시설을 운영할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이용 목적과 운영 여건에 맞는 시설이 조성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주민 입주부터 공공시설 개장까지 통합 일정을 마련하고, 건축공사와 함께 내부 공사, 인력 확보, 운영예산 및 위탁 절차를 준비하는 한편, 개장 지연 사유와 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공공시설 인수 전에 장기 유지관리비와 하자 처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설계상 미비 사항과 초기 하자에 대해서는 행복청과 LH 등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동시에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공시설의 성과는 준공식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당초 계획한 목적에 맞게 시민이 필요한 시기에 편리하게 이용하고,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사례와 유아용 변기 하나가 드러낸 행정의 빈틈을 공공시설 건립과 인수·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